

-고 나서

~하고 나서 — 완료 후

앞의 행동이 끝난 뒤에 뒤의 행동이 시작됨을 나타냅니다. 나다는 ‘나오다, 끝나다’라는 뜻으로, 단순한 -고에는 없는 완료의 의미를 더해 줍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작 동사	-고 나서	먹다 → 먹고 나서
ㄹ 어간은 ㄹ 유 지	-고 나서	만들다 → 만들고 나서
조건으로	-고 나면	먹고 나면 졸려요
같은 의미	-(으)ㄴ 후에 / 다음 에	먹은 후에
형용사	쓸 수 없음	좋고 나서는 없음
시제 불가	어간에만 붙음	먹었고 나서는 틀림

■ 언제 쓰나요

-고 나서는 모든 동사 어간에 붙습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도 그대로 남으며, 앞에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

동작 동사에만 쓰며, 보통 두 행동의 주어가 같습니다. 형용사와 있다는 끝낼 동작이 없으므로 이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.

-(으)ㄴ 후예와 비교하면 차이는 의미보다 강조점에 있습니다. 후예는 시간 순서상 한 사건이 다른 사건 뒤에 온다는 것을 나타내고, -고 나서는 앞의 일이 완전히 끝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지시문이나 요리법에서는 -고 나서가 더 자연스럽습니다.

관련 표현 -고 나면은 조건의 뜻이 됩니다: 먹고 나면 졸려요 (먹고 나면 항상 졸리다).

■ 예문

- 1 숙제를 하고 나서 놀아요.
- 2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드세요.
- 3 손을 씻고 나서 재료를 준비하세요.
- 4 저녁을 만들고 나서 설거지를 했어요.
- 5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해요.
- 6 영화를 보고 나서 커피를 마셨어요.

■ 비교

-고
-고는 행동을 순서대로 나열할 뿐이고, -고 나서는 앞의 행동이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. 요리법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.
손을 씻고 준비하세요. (씻고 준비함) / 손을 씻고 나서 준비하세요. (다 씻은 다음에 준비함)

-(으)ㄴ 후예
거의 바꿔 쓸 수 있습니다. 후예는 더 중립적이어서 글에도 어울리고, -고 나서는 말로 하는 지시에 더 가깝게 들립니다.
먹은 후에 약을 드세요. / 먹고 나서 약을 드세요.

-자마자
-자마자는 간격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, -고 나서는 간격이 있어도 됩니다. 즉시성을 강조하려면 -자마자가 맞습니다.
먹고 나서 나갔어요. (먹은 다음에 나감) / 먹자마자 나갔어요. (다 먹은 순간 바로 나감)

■ 주의

- ✗ 밥을 먹었고 나서 약을 먹었어요.
○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었어요.
-고 나서는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 과거는 마지막 동사에서 한 번만 나타냅니다.
- ✗ 날씨가 좋고 나서 나갔어요.
○ 날씨가 좋아서 나갔어요.
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. 이 표현은 동작 동사에만 씁니다.
- ✗ 제가 요리하고 나서 동생이 청소했어요.
○ 제가 요리한 후에 동생이 청소했어요.
-고 나서는 보통 두 절의 주어가 같습니다. 주어가 두 사람이면 -(으)ㄴ 후예가 더 자연스럽습니다.